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한 결과 그는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는 각 나라마다 실력이 뛰어난 대표선수들이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준비운동을 하며 연습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자기들과는 달리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촌스럽고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웃음은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대로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뻘~익!" 소리와 함께 경기는 시작됐고 얼마 후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등을 차지한 선수는 촌스러운 운동모습 때문에 모두에게서 비웃음을 당했던 바로 그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1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더 재미있고 놀라운 일은 다음 시합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의 준비운동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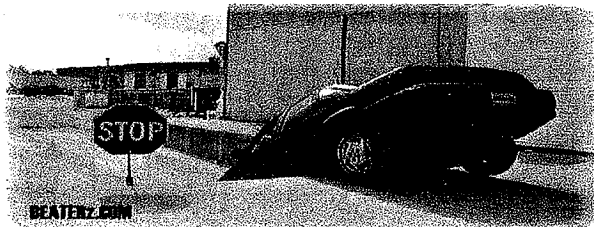
그 대회 이후에 그가 했던 준비운동이 권위있는 준비운동으로 받아들여져서 다른 나라의 여러 선수들이 자신들의 준비운동으로 활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만하던 다른 선수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해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시아의 물개'라고 부르는 "조오련" 선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언 18:12)"

◀눈물나는 밤엔 우미의 첫발을▶ 교통 표지판을 믿읍시다



<p>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p>	<p>'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p>	<p>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p>
<p>제 5권 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p>		<p>2003년 1월 19일</p>
<p>☎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p>		

독일의 힘



필 박사는 몇 명의 외국인과 함께 독일을 여행하던 중 공원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을 만나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가 오는 바람에 그는 급히 자동차를 타려다가 그만 만년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에 창밖을 보던 필 박사는 자신의 만년필을 든 채 달려오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년필 하나 썸이야' 하는 생각에 차를 멈추지 않고 창 밖으로 소년에게 만년필을 가지라는 뜻으로 팔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뒤 육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필 박사는 다 찌그러진 그의 만년필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필 박사님께!

그날 선생님의 만년필을 우연히 가지게 된 소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만년필을 들고 온 다음날부터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려 애썼지요. 그것은 겨우 열세 살 어린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들은 꼭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포기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기를 오개월, 어느 날 아들은 우연히 선생님의 글이 실린 신문을 보고는 그 신문사를 직접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왔습니다. 그때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한달전

"어머니, 우체국에 가서 그 박사님께 만년필을 부쳐 드리고 오겠습니다." 는 말을 남긴 채 훌쩍 집을 나선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무작정 우체국으로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자동차를 미처 못 본 것입니다. 다만 그 애가 끝까지 가슴에 꼭 안고 있었던 만년필만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찌그러졌지만 이 만년필을 박사님께 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도 그걸 원할 테니까요. 한 독일 소년의 정직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딸에게

3일 동안의 수련회는
3일동안의 은혜일뿐이다
그것으로 1년을 버틸려고 하지 마라
수련회가 끝난 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 은혜가 평생을 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백댄서가 되기를 원하니?
최고의 백댄서가 되어
백댄서계에 영향력을 주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거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0(이사야 58)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주 일 학 교
찬 송 Hymn	431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1:1-4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두 렵돈의 믿음'	김성국 목사
찬 송 연 주 Hymn	'465장'	박경주 집사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정성호, 박하림 집사가정, 2절:다같이)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5	노은숙	강은미	정관영, 황경임	정관영, 정덕수
12	이규임	경덕현	이재운, 마경춘	정성호, 조용건
19	정희자	고성일	정성호, 박하림	최득수, 최장한
26	지찬영	권용일	최득수, 오지영	최재학, 최현철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지금까지도 Best friend로 지내며 25년간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 목사 아들 둘이 방학차 왔습니다. 어쩔 그렇게 아버지 모습과 같은지 친구 어렸을 적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의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아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과 또 한 칸 늘어난 믿음의 가계를 봅니다.

1. 교우소식
*임원: 이요나(박혜련 집사 딸) Rotorua Hospital, 2주간 예정으로 치료 받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조현구, 추미선 집사 ☎521-4577 ☐ 3Tulagi Pl. Kohimarama
*정종일, 이선애 집사, 고은, 중한 ☎817-2524 ☐ 12A Rangiwai Rd. Titirangi
3.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 식사 후 주방봉사와 몇분의 설거지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4. 수요일예배: 이제부터 만들어져 나가야 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오늘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시간> 수요일 7:30 <성경강해> 출애굽기
5. 제직회: 2002년 재정보고를 위한 제직회 <일시> 22일, 수요일예배 후
6. 다음주일예배 <시간> 오전 11시
*수련회와 함께 Camp장에서 야외예배 겸 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Carey Park Christian Camp, 37 Henderson Valley Rd. Henderson, 837-0494
7. 교우수련회: 안내문 참조
<일자> 1월 24(금)-26(주일) <장소> Henderson Camp
*<아동, 학생, 청년> 2박3일 숙식 <장년> Camp에서 숙박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10시, <토요일> 오전 10시-저녁 10시(성경공부, 친교, 저녁집회)
<주일예배> 오전 11시(Camp장에서)
8.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
*준비위원장: 최재학
*준비위원: 이규임, 박일영, 신영화, 윤형권, 권용일, 이재영
9. 제2남산교회 임원선출: <회장> 박병민
10. 교회창립예배: 임성광 목사(중등부), 오성교회를 Milford에 개척하여 창립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2월 2일(주일), 저녁 6시

◀착한 시인들▶ 새벽별

- 도종환 -

새벽 하늘에
돌아가지 못한 별 하나 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때를 기다려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온
별인지도 모르지요.

쓰레기 통을 내어다 놓으며 울
러다 본 새벽, 별만 초로 반짝입
니다. 밤새워 비추다 남겨 놓은
빛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려는 사
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
니다. 지쳐있을 때 하늘 한 번 보
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용기입니
다. 힘내서 가슴에 별을 담으세요.